

##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작업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주리아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 An Influence of Art Therapists' Art Practice on their Burnou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Juliet Jue

Division of Art Therap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작업과 경력몰입, 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미술 작업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미술치료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 171명으로 이들은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였고 1년 이상 임상 실습을 해왔거나 미술치료사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도구는 미술 실기, 심리적 소진, 경력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경력몰입과 소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미술 실기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미술치료사의 경력몰입은 미술 작업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미술 실기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actice, career commitment, and burnout among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actice and burnou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1 master's and doctoral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who had enrolled for at least two semesters and had been in clinical practice for more than one year or were working as art therapists. Research tools include the Art Practice Scale,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and the Career Commitment Scale. Data a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rt practice and career commitment among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but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commitment and burnout. Second, art practice had an effect on reducing psychological burnout. Third, the study confirmed that art therapists' career commi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practice and burnout. These results suggest it is important for art therapy graduate students to engage in art practice to prevent psychological exhaustion.

**Keywords** : Art Therapy, Burnout, Art Practice, Career Commitment, Mediating Effect

---

\*Corresponding Author : Juliet Jue(Hanyang Cyber Univ.)

email: juliet@hycu.ac.kr

Received September 11,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October 4,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 1. 서론

소진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냉소적으로 되거나 무기력해진 상태를 일컫는다[1,2].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이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내내심과 민감성을 가지고 꾸준히 경청과 공감, 정서적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는데, 대체로 일방적인 배려와 이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담 관계 특성상 이들도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3]. 정신건강 전문가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소진되면, 일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의욕이 낮아지며 직무 수행 수준이 낮아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도 저하되고 우울이나 무망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된다.

미술치료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분야인데, 1999년에 대학원 전공으로 처음 개설된 이후 2023년 현재 30여 개의 미술치료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4]. 이처럼 전문가의 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아직 현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4-6]. 특히 미술치료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실습에 나가거나 미술치료사로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5].

미술치료사의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들이 경험하는 소진 경험의 본질을 규명하거나[4],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구성경로를 탐색하는 것[7], 그리고 소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룬 것[5] 등이 있다. 미술치료사의 소진 경험은 인접한 분야인 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의 소진 경험과 대부분 유사했지만 두드러진 차이점은 ‘미술’이라는 요인의 영향력이었다. 미술은 미술치료와 다른 형태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구분해 주는 요인으로, 미술치료사들에게 직업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직무 유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러 연구자들과 미술치료사들은 미술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8-11]. 미술 재료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테크닉이 부족할 경우에 미술치료사들은 치료 회기에서 내담자를 돕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며 미술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보고하기도 한다[12]. 꾸준히 미술 활동을 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미술 작업을 돕는 직무능력이 강화되고 치료사로서 자기 탐색과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13,14].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경우 자신의 업무 유능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다양한 미술 실기 활동을 하게 된다. 미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술치료사의 자기돌봄에도 포함된다. 미술치료사에게는 미술이, 음악치료사에게는 음악이 전문적 자기돌봄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이다[7,15].

한편, 경력몰입은 직업에 전념하거나 개인의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16], Blau[17]는 경력몰입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면서 경력몰입이란 개인이 자신의 전문직업에 대해 지니는 태도라고 정의했다. 경력몰입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력몰입은 학습동기를 강화시키며[18] 수행노력을 증진시키고[19,20]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워주고[21,22], 개인이 자신의 경력 목표와 관련해서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자기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23]. 또한 경력몰입은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낮추는데, 경력몰입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정서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무망감을 느끼고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24,25].

자기효능감이 높고 통제 소재가 개인 내부에 있다고 지각할수록 경력몰입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미술치료사의 실기 역량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미술치료사의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보고한 것도 있는데[26], 예상한 바와 같이 미술 실기는 이들의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 경력몰입, 소진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면 Fig. 1과 같다. 선행연구 중에는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의 관계, 경력몰입과 소진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것들이 있고 미술치료사들의 소진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으나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치료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미술 실기에 대한 태도와 유능성을 조사하고 이 요인이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그 관계에서 경력몰입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Fig. 1. The research model

## 2. 본론

### 2.1 연구 방법

#### 2.1.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우리나라 미술치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생 171명(석사과정 122명, 박사과정 49명)이다. 이들은 미술치료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표집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대학원 과정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사람이며 미술치료사로서의 치료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인 자로 모집했다. 대상자들의 나이는 평균 38.9세(표준편차 8.9세)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29명, 30대 64명, 40대 53명, 50대 이상 25명으로 분포했다. 성별 비율은 남성(5.3%), 여성(94.7%)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러한 성비는 대학원생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학계에 보고된 미술치료사의 성비와 유사하다[27].

#### 2.1.2 측정 도구

##### 2.1.2.1 미술 실기 척도

미술치료 대학원생이 미술 실기를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Jue와 Ha[26]가 개발한 The Art Practic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어로 개발되어서 별도의 번안 없이 그대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문항이 있고, 2개의 하위요인인 미술 역량(art competency)과 미술 작업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art work)로 구성되었다. 평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미술 작업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실기 역량도 풍부하며 미술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Jue와 Ha[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고.

##### 2.1.2.2 경력몰입 척도

경력몰입은 Blau[17]가 개발한 경력몰입 척도를 탁진국[28]이 번역한 것으로 사용했다.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다. 본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경력몰입의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한다. Blau[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고.

##### 2.1.2.3 소진 척도

소진은 Maslach와 Jackson[29]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최혜윤[30]이 번안한 측정

도구로 평가하였다. MBI는 총 22개 문항이며, 3개 하위요인(정서적 소모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0점)~매일(6점) 사이에서 응답하는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한다. 긍정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최종적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한다. 최혜윤[30] 연구에서 MBI의 Cronbach's  $\alpha$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 2.1.3 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미술치료 대학원의 협조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첫 장에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었다.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익명성도 충분히 보호되었다.

#### 2.1.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고,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값을 산출했다. 둘째,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경력몰입이 미술 실기와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31]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 2.2 연구 결과

### 2.2.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상관분석 결과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33, p<.001$ ), 미술 실기와 소진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27, p<.001$ ). 경력몰입과 소진은 서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37, p<.001$ ).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the study variables

	1	1-1	1-2	2	3	3-1	3-2	3-3
1	1							
1-1	.89***	1						
1-2	.89***	.58***	1					
2	.33***	.19*	.40***	1				
3	-.27***	-.21**	-.26**	-.37***	1			
3-1	-.06	-.05	-.04	-.28***	.77***	1		
3-2	-.09	-.06	-.08	-.13	.63***	.56***	1	
3-3	-.35***	-.27***	-.36***	-.25***	.57***	-.05	.05	1
M.	33.97	13.08	20.91	30.03	36.14	15.47	2.62	18.05
S.D.	5.65	3.15	3.20	4.18	12.75	8.71	2.66	7.58

Note. 1 Art practice, 1-1 Art competency, 1-2 Art attitudes, 2 Career commitment, 3 Burnout total, 3-1 Emotional exhaustion, 3-2 Depersonalization, 3-3 Achievement decrease. \* $p<.05$ , \*\* $p<.01$ , \*\*\* $p<.001$ .

### 2.2.2 미술 실기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술 실기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는데, 이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74$ ,  $p<.001$ ). 즉, 미술 실기를 많이 수행할수록 소진을 경험하는 정도는 감소하였다. 이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R^2=.07$ ).

Table 2. Influence of art practice on burnout

D.V.	I.V.	B	S.E.	$\beta$	t	F	$R^2$
Burnout	Art practice	-.60	.17	-.27	-3.57***	12.74***	.07

Note. D.V.=Dependent Variable, I.V.=Independent Variable, B=u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ized error,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 $p<.001$ .

### 2.2.3 미술 실기와 소진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

미술 실기와 소진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1]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미술 실기는 경력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eta=.33$ ,  $p<.001$ ), 2단계에서 미술 실기는 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27$ ,  $p<.001$ ). 3단계에서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모두 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미술 실기의 예측 효과는 2단계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므로 경력몰입은 미술 실기와 소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지 검증하기 위해 5,000회 표집을 시행하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43, -.09로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32].

Table 3.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areer commitment

Stage	Path	B	t	F
1	Art practice → Career Com.	.33	4.56***	20.82***
2	Art practice → Burnout	-.27	-3.57***	12.74***
3	Art practice → Burnout	-.16	-2.14*	15.90***
	Career Com. → Burnout	-.32	-4.21***	

Note. Com.=Commitment. \* $p<.05$ , \*\*\* $p<.001$ .



Fig. 2. The final model's path; all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4. Bootstrapping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of career commitment

	Effect	S.E.	95% CI	
			LL	UL
I.V. = Art practice D.V. = Burnout	-.24	.09	-.43	-.09

Note.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3. 논의

본 연구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경력몰입 및 소진 경험에 있어서 이들의 미술 실기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는 이들이 소진을 경험하는 정도를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Brown[33]의 연구에서 미술치료사들이 미술 작업을 그만두게 되면 심리적인 면에서나 직업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혔던 것을 지지하는 결과다. 또한, 이 결과는 직무 유능성이 소진을 예방하거나 낮추어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Gam et al.[34]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미술치료사의 경우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

다고 보고했다. 자기효능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술치료사가 미술 실기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진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둘째, 미술 실기는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경력몰입 수준을 증가시켰다. Jue와 Hal[26]은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술치료사로서의 미술 활동은 직업정체성과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미술 실기는 미술치료 분야에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술치료사로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여주며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도록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경력몰입과 소진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9,35,36]. 경력몰입은 소진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경력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견디고 자신의 전문분야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경력 변경이나 이직 의도는 낮아지며 소진에 대해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25,37,38].

넷째, 본 연구에서 미술 실기를 예측변인,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경력몰입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했을 때, 경력몰입은 이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미술 실기를 더 많이 수행하고 미술 작업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경력몰입 수준이 높아져서 미술치료 대학원생이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즉, 미술 실기 역량을 갖추는 것은 미술치료사로 하여금 치료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추구하는 경력 목표에 대해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해준다. 또한 미술 실기는 직접적으로 소진의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미술 과정에 몰두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통찰을 얻는 과정이 치유적이며 주관적 안녕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8,10,14,39]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치료 대학원생은 꾸준히 미술 작업을 해나가면서 미술 매체를 다루고 작업 결과물을 통한 자기 치유작업을 지속함으로써 미술치료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아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 교육에서 치료사의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심리적 소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교육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횡단적 설계를 적용한 것이다. 통계적 방법과 의거하여 인과 관계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으나, 실제 원인과 결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향후 종단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직하다. 둘째,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 외에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적응을 향상시키고 소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치료 대학원생의 소진 경험에서 미술 실기와 경력몰입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 실기는 다른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과 달리 미술치료사들에게 특정한 직무 능력이다. 이러한 특정 직무 능력이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력몰입도 더 높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미술치료 대학원생 교육과 미술치료사의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무 활동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G. Corey, M. Corey, P. Callanan, P.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7th ed.). Brooks Cole Publishing, pp.63-66, 2007.
- [2] J. M. Raquepaw, R. S. Miller, "Psychotherapist burnout: a componential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Vol.20, pp.32-36, 1989. DOI: <http://dx.doi.org/10.1037/0735-7028.20.1.32>
- [3] T. Remley Jr., B. Herlihy,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6th ed.), Pearson, pp.25-56, 2019.
- [4] S. Choi.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art therapy program in Kore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0, No.4, pp.659-674, 2013.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3.20.4.001>

- [5] E. Kim,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ive Experience of Art Museum Visits of Art Therapists Reporting Burnout",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2, No.6, pp.1743-1762, 2015.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5.22.6.009>
- [6] Y. Lim,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ovice arttherapists' frustration in their clinical practice of arttherap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p.83-86, 2011.
- [7] Y. Kim, 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art therapist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art therapist's self-car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16, No.2, pp.29-54, 2020.  
DOI: <https://doi.org/10.32451/KJOAPS.2020.16.2.029>
- [8] P. B. Allen, "Artist in residence: An alternative to clinification for art therapists", *Art Therapy*, Vol.9, No.1, pp.22-29, 1992.  
DOI: <https://doi.org/10.1080/07421656.1992.10758933>
- [9] B. J. Fish, "Response art: The art of the art therapist", *Art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Vol.29, No.3, pp.138-143, 2012.  
DOI: <https://doi.org/10.1080/07421656.2012.701594>
- [10] B. L. Moon, *Existential art therapy: The canvas mirror*(3rd ed.), Charles C Thomas, pp.118-129, 2009.
- [11] H. Orkibi, "Students' artistic experience before and during graduate training",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9, No.5, pp.428-435, 2012.  
DOI: <https://doi.org/10.1016/j.aip.2012.06.007>
- [12] K. Han,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of art therapy major master's degree program students in the context of 'art therapy classes focusing on art-making'",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2, No.2, pp.271-294, 2015.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5.22.2.001>
- [13] S. L. Harter, "Visual art making for therapist growth and self-car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Vol.20, No.2, pp.167-182, 2007.  
DOI: <https://doi.org/10.1080/10720530601074721>
- [14] H. Hong,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n lived experience of art therapists' self-care through art-making",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2, No.3, pp.777-798, 2015.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5.22.3.006>
- [15] J. Namko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variables and self-care behaviors in music therapist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pp.27-46, 2018.
- [16] S. T. Colarelli, R. C. Bishop, "Career commitment: Functions, correlates, and management", *Group & Organization Studies*, Vol.15, No.2, pp.158-176, 1990.  
DOI: <https://doi.org/10.1177/105960119001500203>
- [17] G. Blau, "The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58, No.4, pp.277-288, 1985.  
DOI: <https://doi.org/10.1111/j.2044-8325.1985.tb00201.x>
- [18] J. A. Colquitt, J. A. LePine, R. A. Noe, "Toward and integrative theory of training motivation: A meta-analysis path analysis of 20 years of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5, No.5, pp.678-707,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5.5.678>
- [19] K. Lee, J. J. Carswell, N. J. Allen, "A meta-analytic review of occupational commitment: Relations with person-and work-related variab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5, No.5, pp.799- 811,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5.5.799>
- [20] S. Mark, B. De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profile and work attitudes, employee withdrawal, and job performanc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29, No.3, pp.353-365, 2000.  
DOI: <https://doi.org/10.1177/009102600002900305>
- [21] K. Lee, "The comparison of impacts of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job attitudes among professional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16, No.3, pp.799-813, 2003.
- [22] J. Park, J. Tak, "The effects of woman employee's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s on career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21, No.2, pp.245-263, 2008.  
DOI:<https://doi.org/10.24230/ksiop.21.2.200805.245>
- [23] P. B. Srikanth, D. Israel,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success: Mediating role of career satisfaction", *The Indi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48, No.1, pp.137-149, 2012.  
<https://www.istor.org/stable/23509772?seq=1>
- [24] H. Le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Career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of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5, No.2, pp.109-126, 2011.
- [25] G. Blau, "Job, organizational, and professional context antecedents as predictors of intent for interrole work transi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6, No.3, pp.330-345, 2000.  
DOI: <http://dx.doi.org/10.1006/jvbe.1999.1718>
- [26] J. Jue, J. H. Ha, "Influence of art therapy students' art practice on their professional identity and career commitment",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8, No.1, pp.13-21, 2021.  
DOI: <https://doi.org/10.1080/07421656.2020.1743609>
- [27] Lee, S. H., Choi, W. S., & Kim, Y. S. "The status and prospects of art therapis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24, No.1, pp.43-69, 2017.  
DOI: <https://doi.org/10.35594/KATA.2017.24.1.003>
- [28] J. Tak,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obstacles to career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9, pp.25-36, 1996.

- [29] C. Maslach, S.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2, pp.99-113, 1981.  
DOI: <http://dx.doi.org/10.1002/job.4030020205>
- [30] H. Y. Choi,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p.86, 2002.
- [31]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32] K. J. Preacher, A. F. Hayes,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36, No.4, pp.717-731, 2004.  
DOI: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33] C. Brown, "The importance of making art for the creative arts therapists: An artistic inquiry",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5, No.3, pp.201-208, 2008.  
DOI: <https://doi.org/10.1016/i.aip.2008.04.002>
- [34] J. Gam, G. Kim, Y. Jeon, "Influences of art therapists'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burnout",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47, pp.1-8, 2016.  
DOI: <http://dx.doi.org/10.1016/j.aip.2015.09.005>
- [35] C. L. Coogle, I. A. Parham, C. A. Rachel, "Job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among Alzheimer's care providers: addressing turnover and improving staff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Vol.26, No.7, pp.521-527, 2011.  
DOI: <http://dx.doi.org/10.1177/1533317511429322>
- [36] J. Zhang, Q. Wu, D. Miao, X. Yan, J. Peng, "The impact of core self-evaluations on job satisfaction: the mediator role of career commit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6, No.3, pp.809-822, 2014.  
DOI: <http://dx.doi.org/10.1007/s11205-013-0328-5>
- [37] S. Aryee, K. Tan, "Antecedents and outcomes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0, No.3, pp.288-305, 1992.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92\)90052-2](http://dx.doi.org/10.1016/0001-8791(92)90052-2)
- [38] H. M. Yoon, P. S. Noh, "Relationship of work stress, career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ducare-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43, pp.157-184, 2013.
- [39] J. Jue, J. H. Ha, "The professional identity, career commi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art therapy students",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57, pp.27-33, 2018.  
DOI: <https://doi.org/10.1016/i.aip.2017.10.007>

주 리 애(Juliet Jue)

[정회원]



- 1999년 8월 : The George Washington Univ. Art Therapy Department (미술치료 석사)
-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09년 8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미술치료, 색채, 지각심리학, 임상심리학